

운명은 손 안에 있다? - 재미로 보는 '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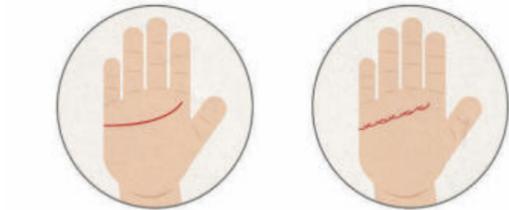
“손금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예측할 수 있다.”

손금은 손바닥의 무늬를 관찰하여 그 사람의 성격 및 과거,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관상술의 일종이다. 이런 점은 낯선 이성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운세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재미로만 즐겨야 한다. 'GS칼텍스' (gscaltextmediahub.com)가 재미 삼아 손금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소개했다. 자신의 손금과 비교하면서 손금을 통해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자.

■ 3개의 중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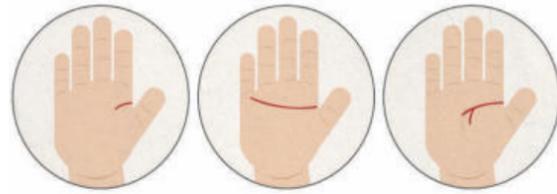
손금을 볼 때 왼손과 오른손, 어떤 손으로 보아야 할까? 갑론을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즉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보면 된다. 보통의 경우, 손마다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손금 3개가 있는데요. 위부터 차례로 감정선, 두뇌선, 생명선이다.



▲ 외로움을 많이 탄다면...감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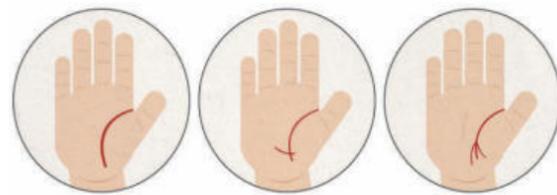
감정선은 애정운과 관계가 있다. 검지까지 길게 뻗어 있을수록 사랑을 중시하는 성격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여러 줄이 꼬여 있다면 현모양처나 미인일 확률이 높다.

감정선이 짧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탄다.



▲ 나의 적성은...두뇌선

두뇌선은 사고 방식이나 적성과 관계가 있다. 선이 짧을수록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고, 선이 길수록 숙고하는 타입이다. 두뇌선이 아주 짧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완벽주의자이다. 두뇌선의 끝부분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경우는 예술 방면에 재능이 있고, 새끼손가락 쪽을 가리키며 위로 올라가 있으면 회사원 보다는 사업가 기질을 지니고 있다.



▲ 나는 과연 오래 살까...생명선

생명선은 말 그대로 수명과 관련이 있다. 길고 두꺼울수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에 의해 잘린 경우는 사고로 본인의 수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면 말년에 병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 또 다른 손금 결혼선

감정선과 새끼손가락 사이를 보면 뚜렷하진 않지만 또 다른 손금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결혼선이 다. 결혼선이 2개 이상이면 바람



기가 있다고 한다. 결혼선이 길수록 깊은 사랑을 하고, 짧을수록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연이 많다. 길고 짧음은 새끼손가락의 폭을 기준으로 한다. 또 결혼선이 감정선에 가까울수록 결혼 시기가 빠르다.

■ 아주 특별한 손금들

▶ M자 손금



M자 손금은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사이를 운명선이 쪽 뻗어 올라가며 만들어진다. 황재수가 생기는 대박 손금이어서 억만장자나 복권 당첨자들에게서 잘 발견된다.

▶ 삼지창 손금



삼지창 손금은 회사의 대표나 재벌 등 부유한 사람들의 손에서 주로 발견된다. 삼지창 손금은 운명선, 사업선, 재물선이 삼지창 형태로 모인 모습으로 약지와 소지 사이로 올라가는 사업선이 진할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 원숭이 손금



원숭이에게 많이 보이는 손금이라고 해서 원숭이 손금이라고 부르며 감정선과 두뇌선이 일자로 일치한 손금을 일컫는다. 하지만 부자 아니면 가난뱅이 즉, '도 아니면 도'의 운명을 타고 났다.

손금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맹신하시면 안 된다. 누가 뭐래도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크게 성공한다면 그 손금이 바로 성공한 사람의 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GS칼텍스



정통 지압

GG Queen Spa Body & Foot

정통 지압

Body (1 hr)

\$60

5 Tickets

\$275

Body (45 min) +
Foot (15 min)

\$50

5 Tickets

\$225

Body (30 min) +
Foot (30 min)

\$40

5 Tickets

\$175



GG 퀸스파

714-591-5260

985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